

## 10. 『만언봉사』

1574년(선조 7년)에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당시 선조 임금은 지진이 일어나는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정의 신하로부터 초야에 이르기까지 널리 의견을 구하는 교지를 여러 차례 내렸다.

당시 임금이 내린 교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생각해 보면 임금의 마음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근원인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임금의 마음에 바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인가?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것은 앞에 이르는 일인데 배움에 진보가 없기 때문인가? 조정은 나라의 모범인데 실질적인 것은 없으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일 만들지만 좋아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인가? 백성들의 생업은 나라의 근본인데, 백성들이 곤궁하고 또 그들을 막고 억누르는 참상이 있기 때문인가? 현명한 자와 사악한 자가 뒤섞여 관직에 진출했는데, 혹시라도 임금이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가? 정권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여지가 있어 혹시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기 때문인가? 언로가 열리지 않아서 임금의 눈과 귀가 아직도 막혀있기 때문인가? 초야에 숨어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아직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수많은 관리가 죽은 듯이 놓고 있어 많은 일이 망가졌기 때문인가? 옥사(獄事)가 지체되어 백성의 원망이 많기 때문인가? 사치와 신분에 어긋난 일들이 아직도 왕성한데 어떻게 그것을 고칠 것인가? 인심은 날로 악화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교화(教化)할 것인가? 도적은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치게 할 것인가? 군정(軍政)이 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손질할 것인가?”

당시 재난과 기상 이변이 생기면 임금은 삼가고 조심하며 반성하고 바른 정사를 펼쳐야 한다. 군주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그래서 신하들과 선비들에게 널리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조언을 구했다. 위 인용문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은지 잘 나타나 있다. 율곡도 이러한 교지를 읽고 『만언봉사』를 올리게 된 것이다.

당시 율곡은 우부승지로 근무하고 있었다.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경과 할 때였다. 그는 그동안 관직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직접 겪은 다양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유교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이러한 상소문을 올렸다.

‘만언봉사’란, ‘만언(萬言)’, 즉 1만 자의 문장으로 된 ‘봉사(封事)’ 즉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밀봉(密封)하여 올린 의견서라는 뜻이다. 실지로는 이 상소문은 1만 2,000자가 넘는다. 1574년 즉 갑술년에 지었다고 하여 ‘갑술만언봉사(甲戌萬言封事)’라고도 하며 혹은 ‘만언소(萬言疏)’라고도 불린다. 1책 5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율곡은 당시 정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비판하였는데, 상하 간의 신뢰가 없고, 관리들에게 책임감이 없으며, 경연(經筵)의 운영과 재해 대책, 그리고 백성의 복리 증진과 인재 등용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임금(修身)에 더욱 힘쓰고 분발해야 하며,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하고 어진 선비를 가까이할 것을 들었다. 그리고 안민(安民)의 요체로 개방적인 의견 수렴, 공안(貢案)의 개혁, 사치풍조 개혁, 선상제도(選上制度)의 개선, 군정(軍政) 개혁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건의하였다. 특히, 안민에 관해서 서술할 때는 역대 조정에서의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한 뒤에 ‘옛 제도를 개량하여 새로운 법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원기(元氣)가 쇠퇴하여 장차 10년이 못 가서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성으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상소문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소문은 먼저 임금이 직언을 구하는 심정과 취지를 서술하고, 본문에서 당시의 폐단에 대한 7개 항목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7가지 폐단은 다음과 같다.

- (1) 상하가 서로 믿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2) 맡은 일에 실질적 노력이 없음
- (3) 경연에서 성취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4) 현인을 등용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5) 재난에 대응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6) 여러 정책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7) 인심(人心)에 선을 지향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마지막으로 율곡은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무릇 이 일곱 가지 우려는 지금 세상의 깊은 고질병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민생이 곤경에 빠진 것은 오로지 이것들이 원인입니다. 이 일곱 가지 우려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록 전하께서 위에서 성스러운 마음을 수고롭게 하시고, 아래에서 많은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중략) 지금의 조정은 아직 편안하고 권세를 잡았던 간신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방의 국경은 아직 온전하여 외적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오히려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기회를 놓쳐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나라가 한가할 때 정치와 형벌 제도를 고쳐서 바로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나라를 떨쳐 일으킬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모두 9개 항목을 제시했다.

- (1) 임금이 자신의 몸을 닦은 수양의 4개 항목

- 뜻을 세움
- 성학(聖學)에 힘씀

- 사심을 버리고 공평한 도량을 넓힘
- 어진 선비를 가까이함

(2) 백성을 편안케 하는 5개 항목

- 정성스러운 마음을 열어 신하들의 충정을 얻음
-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앴
-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 풍조를 개혁함
- 선상(選上)의 제도를 바꾸어 공천(公賤)의 고통을 덜어 줌
- 군정(軍政)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함

마지막으로 율곡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선대 임금들이 남긴 좋은 정치의 영향은 이미 사라지고,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남겨 놓은 악습만 바야흐로 꽃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깨끗하고 공정한 여론을 비록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힘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비유한다면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한창 젊을 때 주색에 빠져 몸을 이리저리 많이 해쳤어도 그때는 혈기가 왕성한 때라 몸이 상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만년에 이르러서야 그 해독이 노쇠함을 틈타서 사납게 나타나, 비록 조심하며 몸을 보양해도 원기(元氣)가 이미 손상되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일이 참으로 이와 같으니, 앞으로 10년이 못 되어 화란(禍亂)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중략)

전하께서 저의 대책을 쓰신다면 그 진행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성실하고 믿음직하게 시행하게 하고 견고한 확신을 갖고 지켜 나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옛것만 지키고자 하는 딱 막힌 세속의 견해 때문에 바꾸지 마시고, 올바른 것을 비방하며 험뜯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3년 동안 이같이 하여 나랏일에 개선이 없고 백성이 편안하지 않으며 군사들이 정예화되지 않는다면, 전하를 속인 죄로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 <참고자료>

- 『율곡전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김경남, 「율곡 이이의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의 저본 및 편찬 방법에 관한 고찰」, 『태동고전연구』 49, 2022.
- 김형찬, 『율곡이 묻고 퇴계가 답하다』, 바다출판사, 2018.
- 미조구치 유조 등, 김석근 등역, 『중국사상문화사전』상, 책과함께, 2011.
- 송석구, 『율곡의 철학사상』, 중앙일보사, 1884.
- 오하마 아키라, 이형성 역, 1997, 『범주로 보는 주자학』, 예문서원.
- 이동인, 『율곡의 사회개혁사상』, 백산서당, 2002
- 이병도, 『栗谷의 生涯와 思想』, 서문당, 1972.
- 이이 저, 이종란 역, 『만언봉사-율곡의 국가개혁론』, 율곡 연구원, 2016.
- 이이 저, 임옥균 등역, 『새로 읽는 성학집요』, 율곡 연구원, 2015.
- 이종란, 「해제」, 『만언봉사-율곡의 국가개혁론』, 율곡 연구원, 2016.
- 이종태, 「율곡 이이의 심성론」, 『율곡사상연구』제3집, 1997.
- 이흥균, 「정·주로부터 본 퇴·율의 이기론」, 『율곡사상연구』제5집, 2002.
- 임옥균, 2007, 『이이 - 정치적 실천철학의 완성』,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세영, 「율곡 군주론의 정치사상적 의의」, 『21세기 정치학회보』11-2, 2001.
- 정재훈,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 재론」, 『역사문화논총』7, 2012.
- 조장연, 「우계와 율곡의 심성론 연구」, 『동양철학연구』제18집, 1998.
- 최정묵, 「율곡의 정치사상과 그 영향」, 『율곡사상연구』20, 2010.
- 황의동, 「율곡의 ‘이통기국’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56, 2009·제2권.
- 황준연, 『율곡철학의 이해』, 서광사, 199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